



조계종 제30기
행자교육원 회향
축하 현장

■ 수계라는 이름의 발원

3월 11일 오전 7시.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조계종 제3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이 봉행됐다. 지난 2월 15일 147명의 행자가 입교해 이날 145명(남 82명 여 63명)이 행자교육을 수료하고 10일 치른 5급 승가고시에 전원 합격해 사미(니)계를 받게 된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출가자의 삶에 충실히 임하고, 행자교육원에서 배우고 익힌 승려로서의 위의를 잊지 말고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밝히는 데 힘써주길” 당부했다. 행자교육원장 성운 스님(직지사 주지)도 “중단의 미래를 책임지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145명의 예비스님들은 “보리심을 내어 나와 남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중생들이 다같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모든 번뇌와 집착들을 놓아 버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 담장 밖의 풍경

새로운 수행자들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날. 직지사 만덕전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은사스님과 속가 가족,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새봄에 태어나는 수행자와의 첫 대면을 앞두고 상기된 얼굴이다. 손에 손에 든 꽃다발이 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연상시킨다. 만덕전 안을 살펴본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와! 저기, 저기, 월담 스님이야, 좀 아원 같잖아도 얼굴이 밝아 보이는 걸.”

“어디, 어디?”

사미계를 수지한 예비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만덕전 앞 금강계단에 모습을 나타내자 울타리 밖 축하객들이 일순간 술렁였다.

“가사 장삼을 수한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걸요.”

“그렇게 길구하던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으니 잘됐습니다.”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춘 예비 스님들을 만발치서 바라본 속가 가족과 불자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다양한 표정이다. 축하객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한 예비스님’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중년의 부부는 끝내 돌을 발을내려놓지 못하고 그 예비스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부디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되뇌이며 합장하는 노부부는 필시 막내아들의 수계식에 온 것일 게다.

7개월 전 사찰에 봉사활동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여동생을 찾으러왔다는 한 보살은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금세 주룩룩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기 바쁘다.

진천 용화사 주지 무위 스님은 신도 10여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만덕전 앞을 지키고 있었다. 상좌 부견 스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다. 스님은 “출가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내가 출가할 때만해도 출가하면 무슨 말 못할 사연의 주인공인 양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곤 했잖아요. 내가 출가한다니까 집안은 초상식 분위기로

오늘의 다짐 잊지않고 한길로 가겠습니다



경산 백암사 혜오 스님(사진 오른쪽)이 통도사를 본사로 출가한 예비스님 8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담장 밖에서 손을 흔드는 신도들(위)과 “우리 강원도에 오라”고 홍보하는 선배스님들.

■ 만남 그리고 격려

드디어 만덕전 문이 열렸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기다림은 정오가 되어야 만남의 시간으로 연결됐다. 예비 스님들이 나와 은사스님과 신도들을 만났다. 긴 기다림 끝에 마련된 짧은 축하의 시간 곳곳에서 박수와 함성이 요란했다.

“스님! 축하드립니다.”

통도사에서 출가한 8명의 예비스님에게 골고루 장미꽃 다발이 전해졌다. 경산 백암사 혜오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말사 스님들은 신도들과 단체로 참석해 대대적인 축하와 격려를 보내기 바랐다.

부산 해운대 부처님마루 주지 호법 스님은 상좌 통도스님 자랑스럽기만 하다.

“부모님, 스승, 친구와의 모든 인연이 부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으니 자랑스럽다”며 싱글벙글 웃을 것이다. 방금 계를 받은 상좌는 “은사스님 이하 사중의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축하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모든 스님들과 함께 한길로 가기를 바랄뿐”이라며 허리를 굽혔다.

그렇다고 모든 예비 스님들이 담장 밖에서의 축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것일까? 분명, 부모 형제가 찾아 왔건만 활짝 열린 큰 문을 놔두고 결문으로 바빠 빠져나가는 그림자도 있었다. 그림자도 인해 가져 온 꽃다발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속세로 향했다.

그래도 울퉁한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하는 꽃의 향기는 변함없을 것이다.

김천 직지사/글=배지선·사진=고영배 기자

“축하와 격려 아끼지 말아달라”

‘새로운 수행자의 탄생은 모두가 축하하고 드러내 기뻐해야 할 일’이므로 행자교육원 회향하는 날 신도들과 함께 참성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

조계종 제30기 행자교육원의 회향을 앞두고 행자들의 소속사찰과 은사스님에게 교육원의 공문이 날아왔다. 지금까지 행자교육원의 회향, 즉 사미(니)계 수계 의식이 철저한 통제 속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지하고 엄중히 진행했던 행자교육원 회향일에 은사스님은 물론 재가불자까지 불러 모아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장 범장 스님은 “새로운 수행자의 탄생은 자랑스럽고 환희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계의식은 엄숙히 봉행하더라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신 순간만큼은 마땅히 축하받고 격려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원은 은사 스님과 신도들이 찾아와 축하해줄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별도의 축하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수행동자가 흐려진다는 계단위원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기기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가격 245,000원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물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물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 ※ 허약한 유희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격건강
- ※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의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일공휴일도 상담 합니다.